

남원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성과 ‘톡톡’

시, 상반기 14개 기업 37억8000만원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
경영자금 지원·근로자 복지·판로 개척 등 실질적 지원 정책 효과

남원시가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영자금 지원부터 근로자 복지, 판로 개척, 행정 소통까지 기업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기업 운영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상반기 동안 14개 기업에 총 37억8000만원의 융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한시 상

향하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원시는 상반기 정책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경

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입차비 지원을 비롯해 전입정착금과 애향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역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이 밖에 기업의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발한 지원,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유치에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과 분양 및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을 위해 관내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산업이 남원에 가득 차도록 유도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된 고창 삼태마을숲.

정읍시, 옛 우체국 자리에 ‘열린 도시광장’ 조성

시내 중심상권 활성화 기대

정읍 시내 한복판에 2000㎡ 규모의 중형 광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시내 중심상권 활성화 및 시민 문화교류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정읍시는 옛 정읍우체국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했다며 올해 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정읍우체국은 1970년 준공 이후 반세기 이상 지역 주민에게 우편, 택배, 금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공간이다. 하지만 2022년 연지동 신청사로 우체국이 이전하면서 남은 노후건물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시는 해당 용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



오는 2026년 6월 이전까지 도시광장으로 조성될 옛 정읍우체국 부지.

지로 11억원(국비 7억원 확보 계획)을 들여 도시광장 조성을 계획했다. 시는 새로 조성할 도시광장을 단순 휴식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 만남과 문화활동, 지역 축제까지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보행 접근성 향상과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기능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옛 정읍우체국 철거는 도시공간 전환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도시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히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며 “원도심의 변화가 시민들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3개 농협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동참

정읍·샘골·태인농협

정읍시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농협들이 힘을 보탤다. 정읍농협과 샘골농협, 태인농협이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동참을 선언했다. 정읍시는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개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 태인농협(조합장 한상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월 생활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애 주소 갖기’ ▲사계절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정읍애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읍애 함께살기’라는 3대 중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로 세 농협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은 물론 로컬 특화 사업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실거주 중인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시민 생활권 전반에 걸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류와 전입을 동시에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구감소는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읍을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기관이 하나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물방개 워터파크’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

남원시가 본격 여름 무더위 및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통동 일원 ‘물방개 워터파크’를 개장한다. 지난 2018년 개장해 인기를 끌었던 ‘물방개 워터파크’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역 내 시원한 물놀이 명소가 자리 잡았다.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조정 분수 등이 갖춰졌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에 운영되며 50분마다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더욱 깨끗한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워터파크 개장에 앞서 방역, 청소를 끝마쳤다”라며 “더위를 식히는 휴식공간으로서 물방개 워터파크가 시민 모두에게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삼태마을숲’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왕버들숲, 뛰어난 경관 가치 인정

고창의 왕버들숲으로 알려졌다 ‘삼태마을숲’이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됐다. 고창군은 이번 지정을 고창의 풍부한 자연유산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 삼태마을숲은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m길이의 마을숲으로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서 왕버들 노거수 95그루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보기드문 장관을 이룬다. 200여년 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온 호안림, 방풍림 역할의 전통적 마을숲이며, 19세기 ‘전라도무장현도’에 남아 있는 숲으로, 풍수

비보 역할의 구전까지 전해지는 등 역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숲이다. 특히 마을에서는 배 형상의 마을이 거친 삼태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두는 말뚝으로 사용하고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와 공동체의 염원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군은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학술조사 및 자료보고서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삼태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고창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증거이자 고창군민들의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고창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보훈문화 확산 기여 국가보훈부 장관상

현충시설 정비·보훈단체 지원 등 성과

고창군이 보훈문화 확산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열린 ‘2025년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전수식’에서 보훈문화 확산 우수기관 표창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올해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현충시설 정비, 보훈단체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정착에 앞장섰던 성과로 풀이된다. 심덕식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보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실천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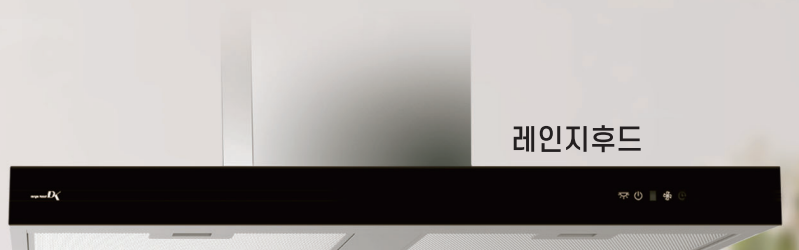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